

飛 龍 池

이 창 근

(중앙도서관 서무과장)

해방 후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계속 봉직한 곳이 서울대학교다. 내가 이번 처음으로 飛龍池(용이 되어 나르는 못)에 부임한것은 지난 9월, 이 곳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 飛龍池에 대한 나의 생각과 飛龍池라고 한 뜻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 글을 쓰기로 했다. 飛龍池란 곳은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뒤 적어도 4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매일같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으며 혹은 이못(池)에서 즐기고 있는 곳이다. 서울대학교 내에 용이 되서 나르는 연못이 어디 있다는 것인가 하고 제군은 궁금히 생각할 것이다. 그 못은 다른 곳이 아니라 中央圖書館을 가리켜 본인이 명명한 이름이다. 왜 도서관을 飛龍池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키로 하자. 동서를 통해 대학의 심장부 하면 도

서관을 가리킨 代名詞로 되어 있음을 제군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. 이 심장은 활용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활용해 주는만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강력한 활소를 그 상대방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. 여러분은 재학시절 즉 4년 이상의 세월을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장 쉽고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비약하는 “힘”을 넣어주고 또 그 힘을 축적해주는 곳이 바로 도서관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제군은 卒業하고 社會에 進出하면 참으로 書籍과 親해 질 수 있는 時間과 與件이 學生時節을 지나면 거의 가질 수 없음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. 나는 도서관에 부임후 놀란 것은, 閱覽室의 座席이 없어 利用할 수 없을 程度로 많은 學生이 利用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와는 反對인 現象에 놀란 것이다. 그는 좌석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이다.

歐美各國의 大學生들은 在學中 最少限 2千卷에 達하는 書籍을 讀破해야 한다 고 들었다. 그런데 우리 大學生들은 어

67 學年度 圖書被學生 閱覽狀況表

閱覽席數	開館日數	閱覽者年累計	一日平均閱覽者數	閱覽圖書數
2714	3637	209,054	58	247,608

註: 本表는 서울大學校 年報 第7輯(1968. 4. 1 現在)에서 발췌한 것이며 中央圖書館과 12個 分館을 合한 것이다.

開館日數는 各 分館에 따라 다르나 中央도서관은 年 319 日을 開館하고 있다. 最高閱覽者數는 醫大도서관이 年平均 254 名 最小는 美大·齒大 도서관이 9 名으로 되어 있다. 閱覽도서 數도 醫大도서관이 77,122 卷으로 最高이고 齒大·美大 2077 卷이다.

며한가.

서울大學校 統計集에서 나타난 67年度 圖書館 學生閱覽 狀況表를 살펴보기로 하자.

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大學校에는 附屬中央도서관 및 各 大學에 있는 分館을 合하여 學生閱覽席數는 2,714 席이 있다. 이를 서울大學校 學生 定員에 比하면 約 5 名이 1 席끝이 되는 셈이다. 表에서 나타난 도서관 利用者 數는 1 日 平均閱覽者數가(1 年을 통이 각 도서관 開館日數로 分한것) 겨우 58 名으로 되어 있고 閱覽도서數는 247,608 卷으로 되어 있다. 閱覽도서數를 在學生數로 나누어 보면 1 年間 한學生이 본 책數는 25.7 卷이 된다. 이 數字를 4 곱해 보면 서울大學校學生들이 在學時節에 읽은 책의 數는 百卷에 지나지 않는다. 결국 4 年間 大學生活에서 본 책이 100 卷 밖에 보지 않았다는 結論이 된다. 歐美各國의 大學生들이 보는 책이 2 千卷이라면 그 折半인 千卷程度의 책을 읽는 大學生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.

특히 우리 서울大學校 學生들만은 歐美 어느나라 大學生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社會人士에게 자랑해온 나로서는 섭섭하기 限이 없는 統計인 것이다.

우리 大學生들의 實情은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. 그러나 너무도 寒心스럽다.

왜 여러분은 飛龍池 밖에서 놀고 몸소 이 못(池)에 들어오지 않을까.

飛龍池 이 못(池)이야 말로 여러분들

이 등용될 수 있는 곳이요 그 힘을 키워 주는 곳이다. 이런 點에서 나는 도서관을 가리켜 용이 되어 나를 수 있는 못(池)이라고 부른 것이다.

끝으로 現中央도서관이 서 있는 곳은 서울大學校 前身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때 처음 세워진 建物로서, 이곳은 우거진 洛山(現在 骨石만 있는 판자村山이 아 니고)에서 흐르는 玉水가 담겨 있는 연못 자리며, 이곳에 이르자면 凝鑾橋注라는 다리를 건너야 했고, 그 當時 다리가 놓였든 곳을 紀念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碑石이 現在도 있음을 여러분들은 살펴 주시기 바란다.

길 빨리 채리소서

韓 祐 勛

(서울 문리대 교수)

자기가 所藏하고 있는 書冊중의 어느 것에는 유달리 지난 날의 애꿎은 사연이나 즐거웠던 追憶이, 혹은 또 感激했던 興奮같은 것이 깃들여 있을 수가 많다. 그럼으로 사람에게 따라서는 藏書가 무엇보다도 더 所重하게 여겨지는 所以는 단지 冊數가 많다던가 稀貴本이 섞여 있다는 때문만이 아닐게다. 그것은 자신의 生의 遍歷을 말하여 주기도 하는 이를테면 精神的인 同伴者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다.

解放前 大學生시절에 모아 간직했던 冊

注：“大學正門에서 中央도서관으로 오면 도서관 건물 바로 옆 느티나무와 개나리 나무 뒤에 이 비석”이 있다.